

쏘연방 붕괴후 러시아 연방군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

李錫浩 (국방대학원)

I. 서론

지난 91년 12월에 쏘연방의 해체와 동시에 러시아연방이 태어났고, 러시아 연방은 쏘련의 계승자라고 했다. 지난 7년(1991.12.-1998.12.)이란 기간에 비하여 러시아연방의 모습은 — 다른 독립 공화국들도 마찬가지로 — 한마디로 말해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변화했다. 러시아는 쏘련의 정치이데올로기, 제도 와 법을 완전히 벗어나 서구적인 정치제도의 수립을 향해서, 경제적으로 명령 식 통제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체제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개인의 기본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체제를 향하여 출발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로 출발할 때 쏘련 말기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제도와 법을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의회의 도전과 반엘친세력의 강화는 개혁에 커다란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엘친(Boris Yeltsin)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므로 급기야 93년 9월에 엘친은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의회를 강제해산하고, 12월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동시에 하원의원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부통령 루츠코 이(Alexandr Rutskoi)와 하원의원장 하스불라토프(Ruslan Khasbulatov)는 불복하고 엘친정권에 정면으로 도전, 무력으로 대항했다. 엘친은 이에 맞서서 무력으로 진압, 반엘친 주동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계획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새로운 헌법은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통령중심제이며, 상하양원제도와 독립된 사법부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와 헌법개정절차가 먼저 헌법보다 복잡하고, 삼권분립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위치가 입법부, 행정부에 비해 가장 취약하다. 새로운 헌법에 의해 최초의 서구적 투표절차를 따라 실시된 하원선거에서 옐친을 지원하는 개혁세력은 450석 중 겨우 11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1995년 12월에도 하원선거가 있었으나 개혁세력은 또다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고, 반면에 1996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 옐친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옐친정권은 1992년 1월부터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1월부터 기본적으로 전략적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소비재 품목의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텅빈 상품진열대를 꽉 채우고 궁극적으로 국내생산업체를 자극하여 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92년 7월부터는 국가재산의 사유화도 시작되었다. 제1단계는 소위 바우처(voucher)의 사유화, 제2단계로 94년 7월부터 화폐의 사유화를 실시했다. 바우처사유화는 국가재산을 바우처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고르게 배분하여 폭 넓은 소유자계층을 만들겠다는 취지였고, 화폐사유화는 시장가격으로 기업을 매각하여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업가가 등장하고 국가재정에 실질적인 수입을 가져올 것을 기대했었다. 또한 러시아경제를 세계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무역자유와 외국투자유치 정책도 실시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은 침체와 불안이 지속되었고, 급기야 98년 8월에는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다시 한 번 맞이하여 국민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의사표현 — 특히 평등하고 비밀이 보장된 투표 —, 사적인 경제행위, 거주지 이전, 학교와 직장의 선택 등이 매우 자유스러워 졌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과거보다 열악하게 되어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남녀 평균수명의 감소, 자살율 증가, 범죄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이 나타났다.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러시아의 군대도 변화했다. 쏘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의 독립, 바르샤바 조약군의 해체, 그 밖에 해외주둔군의 철수 등으로 쏘연방군을 계승한 러시아연방군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국가전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지속적인 하락, 정치·사회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제도와 가치관은 러시아군대를 사회보다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이 글의 목적은 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처럼 변할 때 러시아연방군은 쏘련연방의 해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를 가져온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 연방군이 탄생하는 배경을 서술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92년도에 러시아연방이 쏘연방이 해체되면서 물려받은 군사력을 98년도 군사력과 비교설명하고, 셋째로 이러한 변화에 미친 영향요인을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유산적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II. 러시아연방군 탄생의 배경

여기서는 러시아연방군이 탄생할 당시의 상황으로써 러시아연방 탄생 전후의 국내정세, 국제적으로 쏘련말기의 군사적 능력, 그리고 쏘련말기의 군대내 상황을 서술하려고 한다.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집권한 이후 쏘련은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처음에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경제부분에 한정시키려 했으나 점차 정치분야로 확대, 공개주의(Glasnost), 개조(Perestroika)를 내걸고 정치쇄신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지하고, 자유선거제도, 서구식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혁 노력은 쏘련의 붕괴를 보다 앞당기게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개혁의 본질은 체제내 개혁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 노력은 경제위기를 보다 심화시켰고, 구성공화국, 민족자치공화국들은 주권과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고, 반대 정치세력은 급기야 그를 축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쏘연방은 1991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다. 고르바초프는 집권기간 중 사회주의의 개선을 위하여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이념과 가치관을 벗어나면서까지 제도 와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연방이 탄생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러연방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력의 산물(부정적 의미지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쏘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의 탄생이 고르바초프 시절 쏘련의 정치·경제제도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서 구쏘련해체와 관련 여러 가지의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는 아직도 부분적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해체과정의 매우 독특하고 불가사의하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 같다.

구쏘련의 붕괴는 별다른 과정 없이 20세기 역사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의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평화적 시기에 내전이 없이 더구나 손톱 만큼이나나마의 현실적인 위협도 없었고, 공화국에서 제대로 분리주의운동이 형성되지도 않았고(나름대로의 근거를 지닌 우크라이나 서부와 발트3국을 제외하고), 어떠한 첨예한 경제, 사회적 위기도 없었고, 놀랄 만큼 사회적 안정조차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반동이나 억압 혹은 탄압과는 전혀 무관한 광범위한 개방적 개혁 혹은 최소한 그러한 개혁실시의 시도가 나름대로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스스로 붕괴한 순간 바로 전까지는 '제2의 초강대국'으로 전세계적으로 공인되던 국가가 그냥 무너져버린 것이다. 놀라운 것은 붕괴한 사실 그자체만이 아니라, 이 재난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사회에 어떠한 반응을 초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임종전의 경련 앞에 어떠한 고통스러운 절규도 없었고, 어떠한 대가라도 회생시키고자 하는 절망적인 최후의 노력도 일체 없었다는 점이 대우리는 이에 대해 결코 해석해 하지는 않는다. 단지 사실이 그러했다는 것 뿐이다). (Kosolapnov, 1995).

한마디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조직체가 변화를 추구하다가 외부의 무력공격이나 내부의 무장반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작용을 이기지 못해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각각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각자 생존의 길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엘친은 쏘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연방이 탄생했을 때 그 동안 자신이 추진해왔던 정치·경제의 개혁정책과 당시 러시아연방의 제도 및 법간의 차이점들, 동시에 쏘연방의 붕괴가 남겨놓은(개혁측면에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와 법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또한 엘친이 1991년 8월 쿠데타를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뒤부터 러시아 공화국의 정치권력은 거의 엘친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 11월 러시아공화국의 최고회의는 엘친에게 향후 1년간 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포고령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쏘연방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이 탄생했으므로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맞는 제도개혁이 필요했고, 실천 능력면에서도 권력이 엘친의 수중에 있으므로 제도개혁이 매우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엘친은 이처럼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고르바초프 시절의 정치제도와 정치엘리트들을 그대로 갖고서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했다. 결국 이때 필요했던 과업들은 향후 2년간 정치 권력기관과 정치엘리트들 간의 분열, 대립, 투쟁을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구쏘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탄생할 때 러시아연방은 구쏘련의 여러가지 유산과 자신이 추구하여 온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이어 받았던 것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연방이라고 그 명칭이 바뀔 때, 러시아연방에는 인민대의원대회(Congress of People's Deputies)와 최고회의(Supreme Soviet)가 구성되어 있었고, 엘친은 1990년5월29일에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으로 당선되었고, 1991년5월에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되어 6월12일부터 엘친이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다.

쏘련공산당은 1990년 3월부터 쏘연방 내에서 그 정치적 역할과 위치가 격하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공화국에서는 1991년 11월 6일 엘친 대통령에 의해 러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공산당 활동이 금지되었고 하부조직이 해체되었다.¹⁾ 따라서 쏘연방을 지배하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쏘련공산당은 러시아연방 탄생과 쏘연방 해체에 어떤 역할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국가보안위원회(KGB: Komitet Gosudarstvennoi Bezopasnosti; Committee of State Security)의 경우 1991년8월 불발 쿠데타시에 모스크바시 KGB본부 앞에 있었던 KGB 창시자 드제르킨스키(Felix Dzerzhinskii)의 동상이 제거되어 그 운명을 예고했었다. KGB는 91년 10월 11일에 5개 조직으로 분해되었다가 10월 24일에는 쏘연방이란 이름의 KGB는 없어져 버렸다. 오늘날 러시아연방에는 KGB의 후신으로 연방보안부, 해외정보부, 연방정보국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쏘연방 해체시 러시아 연방 내에는 소규모의 개인영업이

1) 엘친은 1991년 7월 22일 대통령령으로 러시아 공화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의 활동금지법을 발표. 오늘날 러시아연방의 공산당(CPRF: Communist Party of Russian Federation)은 90년6월에 창당되어 91년 11월에 해체된 후, 93년 2월에 재조직되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도는 실시 중이었으며, 러시아공화국 정부는 500일 개혁안, 뒤에 리슈코프(Nikolai Ryzhkov) 수상의 경제개혁안 등의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실천 중이었다. 특히 91년 8월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뒤 엘친은 11월에 인민대의원대회로부터 신속히 시장경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하여 1년간의 비상대권을 위임받았다. 92년 12월 1일까지 러시아의 공화국 대통령 및 최고회의 선거를 제외한 모든 수준의 의회와 행정기관의 선거가 금지되고, 그때까지 러시아대통령에게 지방정부수장의 임명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엘친은 11월 6일에 “경제개혁의 조건하에서 러시아공화국 정부활동의 조직화에 관하여”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겸직하는 강력한 집행권력을 확립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할 때까지 소련은 군사력을 꾸준히 건설하여 1970년대 말에 이미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과 평등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의 군사적 능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첫째로 소련은 미국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핵강대국이 되었다. 핵무기는 소련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어러(Seweryn Bialer)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무기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WTO(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Treaty Organization)사이에서 재래식 군사잠재력의 중요한 균형자이며, 소련안보의 지렛대로써 그 역할을 한다.”(Bailer 1986, 272). 두 번째 특징은 소련 군사력 건설은 모든 지역, 모든 무기체계, 모든 군종에서 이루어졌다. 전역핵무기의 경우에 특히 SS-20미사일과 백파이어 폭격기에 의하여 유럽지역에서는 소련에 유리한 군사력균형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 해안경비에 불과했던 소련해군이 1980년대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군전력에 있어서도 미·소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서구의 이점이었던 공대지미사일의 효과도 소련이 대공방어능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되었다. 소련지상군은 대량의 장갑차, 탱크, 대전차무기, 전술핵무기, 화학무기로 무장되었다.

셋째로 소련은 자신의 군사력을 세계 어느 곳이나 원하는 곳에 투입하여,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련 군사력의 확장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는 소련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강대국(global power status)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가지 관점에서 소련의 이러한 위치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핵과괴력

을 기준으로 할 때 오직 쏘련과 미국만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쏘련지도자들이 이 세계에서 쏘련의 참여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는 사실이다.²⁾

이러한 성공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쏘련군대는 커다란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과 동등한 군사력의 건설은 국내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쏘련경제위기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1989년 국방비로써 773억 루블을 제시하면서 1990-91년에는 14%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Pravda 89/05/31). 이것은 쏘련 GNP의 10%보다 적은 규모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는 쏘련의 국방비를 쏘련 GNP의 15-17%, 어떤 학자들은 GNP의 20-30%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GNP 20% 정도의 군사비지출은 쏘련의 경제적, 기술적, 경영적 기반을 모두 침체시켜 버린 것이다. 반대로 말하여 군사력 건설의 기초가 붕괴된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결과로 쏘련의 경제는 더 이상 군사력건설과 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쏘련군대는 서구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싸울 수 없게 되었다.³⁾ 이러한 이유를 군사과학기술의 낙후에서 찾고 있다. 쏘련 국내에서 페레스뜨로이카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유행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토의할 적마다 그 출발점이 지난 40여 년간 군사력건설에 투자된 비용이었다고 한다. 쏘련의 일반시민들은 자신들의 국방비가 GNP의 약 25%라고 하면서 쏘련 경제는 군대를 위해서 존재하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2차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 쏘련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쏘련군대의 고급지휘관들은 쏘련경제가 서구의 군사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쏘련군 총참모장이었던 오가르코프(Alexandr Ogarkov)는 취약한 경제구조와 능력은 미래의 재래식전쟁에서 사용될 재래식무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조그마한 전술핵무기만큼 치명적인 위력을

2) 1971년 4월 쏘련공산당 제24차 전당대회에서 당시 쏘련 외부부장관인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의 발언임.

3) 참조: Condoleeza Rice, "Gorbachev and the Military: A Revolution in Security Policy, Too?" *Forum*, Vol. 2, No. 4(April 1989)(The Harriman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pp.1-8.

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유도무기, 초단시간내에 대량의 정보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지휘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새로운 군사무기와 장비들은 소련의 재래식 군사장비들을 대부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83년 3월 미국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이 미국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소련의 일부 장성들은 이 프로그램이 공격적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때 오가르코프는 소련군대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개발분야 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1984년 9월에 보직해임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후 소련군대는 국가방어에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제의 재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에게 경제발전과 군사기술의 발전은 가까운 장래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었다.

셋째로 소련은 군사교리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양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소련은 1966-67년 이전에는 장차 서구와의 전쟁에 핵무기가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다. 제한적 사용이든 또는 전쟁기간이 매우 단기적이든 핵무기가 사용될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흐르시쵸프(Nikita Khrushchev)시대에는 이러한 핵전쟁에 관하여, 핵무기의 1차적 역할은 공격이며, 적의 기습핵공격에서도 소련은 생존하여, 남아있는 핵전력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브레즈네프(Leonid Breznev)시대에 와서 이러한 군사교리가 수정된다. 1966-67부터 「제한된 재래식전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핵무기사용도 선제공격적 역할에서 보복공격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생존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소련군대는 장차 어떤 분쟁이든 가능한 재래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소련은 1982년 핵무기의 선제불사용을 선언한다.

소련군 참모부는 점차적으로 핵무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교리를 발전시켰고, 이와 반대로 재래식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련은 항공력, 기갑부대의 중무장화와 기동성 증가, 지휘 및 통신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소련의 재래식공격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나토의 군사교리에 도전적이었다. 점증하는 소련군대의 재래전 능력에 부딪친 미국을 위시한 나토국가들은 이에 대항하는 무기체계와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

다. 즉 쏘련의 영토에서 부대가 동원될 때 WTO와 쏘련군의 제2제대를 격파한다는 군사교리를 발전시켰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지전투(Air-Land Battle)교리는 쏘련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된 교리이며 쏘련보다 훨씬 앞선 고도의 정밀 기술로 무장된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식 군사교리 뿐만 아니라 서구는 미국에 의한 전략무기 현대화(MX미사일, Trident 2형의 SLBM, BIB 전략폭격기)계획과 NATO의 이중선택전략에 따른 Pershing II,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등 전역미사일 서유럽 배치 개시(1983.12.), 나아가 종래의 공격형무기에 의한 억지가 아니고 방어무기에 의한 SDI전략은 쏘련의 무기개발과 군사교리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쏘련이 재래식 전쟁을 강조하면서 발전시킨 군사교리는 서구의 군사기술과 교리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제 와서 경제적 침체와 군사기술의 낙후 때문에 소련이 핵무기에 의존하며 보다 공격적인 군사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다. 공격적인 군사교리가 쏘련의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쏘련지도자들은 판단하였던 것이다. 논리적으로 스스로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방법만이 쏘련에게 최선의 방안이었다.

쏘련군은 매우 규율이 강한 군대로 그 내적 지휘질서를 좀처럼 흐트러뜨리지 않았었다. 특히 쏘련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교단은 쏘련 역사상 종종 있었던 공산당과의 마찰의 경우에도 그 내적 통일성을 유지해왔다. 혁명 초기의 적군(Red Army)의 창설시 군 창설이념과 군 운영을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있었고, 1930년대 스탈린(Iosif Stalin)에 의한 대숙청시 소련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Erickson 1962, 449-509).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소련군의 위치는 상당히 부상되는가 싶었으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쏘련군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슈코프(Georgii Zhkov)원수는 스탈린에 의해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좀더 최근으로 올라오면 1980년대 쏘련군의 개혁을 주장하던 군내 최고 이론가이며 지도자였던 오가르코프 총참모장이 하루아침에 불명예스럽게 강등되는 일도 있었다(Herspring 1991, 166-214). 이상과 같은 공산당과 쏘련군 사이의 마찰이 쏘련군 내부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언제나 쏘련군은 당의 명령앞에 침묵과 순종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토론이나 불만의 소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985년부터 시작된 페레스트로이까 시대에 전 쏘련군 장교단은 이제

까지 볼 수 없었던 뜨거운 토론과 불평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었다. 70년 가까이 침묵과 굴종으로 일관해오던 소련군은 가히 “정치적 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상을 보였다.

소련군의 정치적 분열의 첫 번째 징표는 극단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표출이었다. 로빠진(Vladimir Lopatin)과 사빈킨(Alexandr Savinkin)같은 장교들은 소련군의 군사교리, 군구조, 지휘통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알크스니스(Victor Alksnis)같은 장교들은 동유럽에서 소련군의 지속적인 유지, 국민개병제 유지와 민족혼합부대 유지 등을 주장하였다. 군대 내부에 개혁과 반개혁파가 존재하고, 상호대립이 극심하게 드러났었다(Holloway 1989/90, 779-804).

소련군의 정치적 분열의 두 번째 징표는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등장이다. 페레스뜨로이까 이전의 소련군의 정치적 행동은 주로 당조직을 통하여 나타났으나 페레스뜨로이까가 시작되면서 소련군 내부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조직이 활성화된 것은 물론이고 제정러시아 시대에 있었던 “장교회의”가 부활되는가 하면, 하급장교들은 자신의 생활조건과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기도 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정당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군내부에 지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Rumer 1990).

세 번째의 징표는 군 위계질서의 파괴현상이다. 이전의 정치활동이 군의 고급장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급장교들은 주로 고위장교의 행동대원격의 역할을 해왔다면, 페레스뜨로이까 시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소련군의 정치활동에서는 하급장교들이 직접나서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선부대에서 근무하는 하급장교들은 군내 신문 뿐 아니라 민간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투고하여 군내부의 문제를 고발하였고, 당조직이나 장교회의 등에서 고급장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였고, 또 상급장교의 만류와 압력을 극복하고 선거에 나서서 각급 대의기관에 대의원으로서 선출되기도 하였다.⁴⁾

이러한 소련군내의 활발한 토론과 정치적 분열상에 대해 그 배경은 크게 두

4) 당시 러시아에서 장교들이 군대 내에서 군조직이나, 당조직을 통해 군내부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를 토의, 비판하고, 나아가 공공 대의기관에 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당시의 일시적 분위기가 아니라 전통적인 정치문화인 것으로 보인다. 제정러시아 때 귀족출신의 장교들이 정치문제를 토의하였고, 공산주의 시절에 당조직이나 정부조직(최고회의)를 통해 정치에 참여했었다.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설명은, 소련군 내부의 이 토론이 군내부의 개혁주의자와 반개혁주의자 사이의 대립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Arnett 1990, 233-71). 전반적인 소련체제개혁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타난 반개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소련 정치구도 속에 군내부의 토론을 이해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개혁/반개혁이라는 구도는 베레스트로이까 초기에 군내부에 일어나는 토론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군내부 토론이 짧은 시간 내게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가는 것은 설명하지 못했다. 군개혁이라는 입장을 군의 직업군인화, 소련군의 동구라파에서의 철수 등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보자. 어느 한 장교가 군의 직업군인화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 일단 그를 군개혁주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교는 동구라파에서 소련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지극히 반개혁적인 태도를 보여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소련군 내부의 분열상은 개혁/반개혁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파악하기에 너무도 복잡다단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Lepingwell 1992, 314-35).

두 번째 설명은, 이 시기의 분열상이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대립양상을 보인다는 견해이다(Hough 1991, 56-65). 실상 이 시기의 젊은 장교들의 고위장교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였다. 젊은 장교들은 군의 예산운영, 인사관리, 사병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고위장교를 심히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젊은 장교들 자신들도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젊은 장교들 중에는 위와 같이 고위장교를 비판하며 여러 가지 군개선책을 제시한 장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러한 개선책을 철저히 비판하며 전통적인 소련군 운영체제를 수호할 것을 주장한 장교들도 나왔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소련군 내부는 갖가지 분열이 혼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군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세대교체를 둘러싸고, 또 정치적 노선을 둘러싸고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분열상이 베레스트로이까가 시작된 지 불과 수 년내에 소련군안에 생기게 된 것이었다.

군대내에서 군대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군대의 변혁을 주장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군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미지수들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 예를 들어, 군재정, 장비와 병력의 유지와 훈련, 군대 재배치 등

— 산재하고 있어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했다.

Ⅲ. 러시아연방군의 변화

쏘연방 붕괴과정에서 러시아 연방은 처음에 구쏘련군을 CIS(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통합군이라는 단일 지휘체제하에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서 쏘연방 해체결정과 함께 CIS통합군사령부 창설을 골자로 하는 「잠정 군지휘권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통합군 총사령관에 샤프슈니코프(Evgenii Shaposhnikov)원수를 임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Ukraina)가 CIS통합군체제에 반대하면서 독자적으로 군대를 창설하자(92년 1월), 몰도바(Moldov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도 동조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통합군 창설계획을 포기하고 국방부를 창설하면서(92년 5월) 구쏘련군 중에 러시아영토 내의 부대와 병력, 동유럽지역으로부터 철수하는 부대들, CIS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기타 세계 각지역에서 철수하는 병력 등을 모두 러시아연방군으로 귀속시키고, 92년 5월에 러시아연방군의 창설을 공식선언했다. 옐친대통령은 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 당시 쏘련 제1국방차관이었던 그라초프(Pavel Grachev)를 러시아연방의 초대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러시아연방군이 창설되면서 쏘련으로부터 러시아가 물려받은 병력과 중요 군사장비는 아래와 같다.

<표 1> 병력

단위: 만 명

구 분	총병력	지상군	해 군	공 군	방공군	전략로켓군
쏘 련	340	140	45	42	47.5	16.4
러시아	272	140	32	30	35.6	14.4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1992-1993.

<표 1>의 수치는 영국전략문제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The Military Balance*

에서 인용한 것이다.⁵⁾ 이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연방군은 쏘련군 병력의 약 80%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지상군 경우를 볼 때 논리적으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1993-94년도의 *The Military Balance*을 보면 93년 가을에 러시아군의 총병력은 203만 명, 지상군은 100만 명이다. 따라서 92년과 93년도 자료를 고려할 때 러시아군이 물려받은 병력은 약 70%라고 할 수 있다.

<표 2> 중요 전략 무기

구 분	핵잠수함	ICBM발사기	전략폭격기
쏘 련	60척	1,388기	587기
러 시 아	55척	1,400기	581기

출처 : Ibid.

전략무기는 러시아가 100% 그대로 물려받았다. 핵잠수함의 경우 Yankee-I이 5척 감소되었고(원인불명), ICBM발사기 SS-25 Sickle(RS-12M)이 91년에 비해 약 40기 증가했고, 기타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91년보다 12기가 증가됐다. 전략폭격기의 경우 장거리폭격기 TU-95가 감소, TU-160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6기가 감소하였다.

<표 3> 지상군 중요장비

구 분	탱 크	장갑차	화 포	다련장 로켓	SSM	SAM	헬 기
쏘 련	54,400대	50,000대	64,200문	8,000문	1,350기	4,960기	4,500대
러시아	29,000대	23,000대	43,000대	5,850문	900기	2,305기	3,200대

출처 : Ibid.

지상군 장비의 경우 러시아연방은 쏘연방 지상군의 장비중 약 60%를 인수하였다. 러시아는 쏘연방이 해체될 때 구성공화국에 배치되었던 전략적 장비

5) 이 글에서 쏘련과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수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영국전략문제 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The Military Balance*에서 인용하였음.

와 무기, 신형장비와 무기는 모두 철수시켰어도 구형이며 노후한 장비와 무기는 폐기하거나 배치되었던 공화국에 이양했다. 특히 해외에서 철수할 때 수송 문제로 노후한 장비를 폐기하였고, 나아가 일부는 부정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표 4> 해군 중요 장비

구 분	잠수함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항공기(전투)
쏘 련	317척	5척	38척	29척	1,156기
러시아	250척	4척	33척	26척	620기

출처 : Ibid.

해군 중요장비의 경우에 러시아가 거의 다 인수하였다. 그러나 잠수함과 해군항공기의 경우 너무나 오래된 장비들은—예를 들어 SU-17, SS-80—유지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상당량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의 경우, 쿠즈네초프 1척, 고르쉬코프 1척, 키예프 3척이 있었는데 키예프 1척이 폐기처분 되었다.

<표 5> 공군 주요 장비

단위: 대

구 분	전투기	지원 및 훈련기	수송기	헬 기
쏘 련	4,370	2,535	620	220
러시아	3,300	1,905	620	320*

* 지상군의 장비를 인수

출처 : Ibid.

공군 중요장비의 경우 러시아가 약 75%이상을 인수하였다. 수송기의 경우는 공군사령부의 통제하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100% 인수하였으며, 헬기는 신형장비 MI-24경우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공군이 100% 인수하였고, 쏘연방이 해체될 때 지상군 소속 헬기를 일부 인수받아서 100대가

증가되었다.

<표 6> 방공군의 중요 장비

구 분	ABM	전투기	SAM
쏘 련	100기	2,370대	8,650기
러시아	100기	2,200대	7,000대

출처 : *Ibid.*

방공군 중요장비의 경우 러시아가 거의 100% 인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쏘연방해체에 따라 방어해야 할 국경선이 변경됨에 따라 철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공군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전략적 차원이므로 방공포기지가 거의 다 러시아 영토내에 있었다. 단지 예외로 카작스탄내 바이코누르에 대규모의 방공기지가 있었고, 이 기지는 현재도 러시아에 매우 중요하고, 쉽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쏘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를 8개 군구(과거 14개 군구)로 재편성하여 모든 부대를 재배치하였고, 해군의 경우는 4개 함대와 1개 전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발틱함대의 경우, 발틱3국이 독립하였으므로 칼리닌그라드지역으로 발틱함대를 이동하였다.

흑해함대의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여 흑해함대기지에 있는 해군장비의 50%를 우크라이나에 이양하고, 기지의 일부에 대해 러시아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기로 97년 6월에 합의하였다.

쏘련의 군수산업시설은 그 대부분이 러시아공화국에 소재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항공기(AN-2 계열), 전차(T-84), 함정, 전략미사일, 벨라루시에 지휘 통제장비, 전자광학장비, 카작스탄에 해군의 수중장비, 기타 공화국들에서는 극히 부분적인 부품의 생산시설이 있었다. 연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가 전체의 약 80%를 물려받았고, 고용인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70%가 러시아 소속이었다(IISS 1993-94, 98).

위에 서술한 만큼의 유산을 갖고 시작한 러시아연방군은 지난 7년간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특히 전쟁수행능력과 전투준비태세가 쇠퇴하

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하고 있다.

군사교리와 군사전략도 매우 위축된 러시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소가 대결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그 변화는 180도로 전환했다. 군사교리와 군사정책이 내부지향적이며, 수세적인 변화는 이미 고르바초프때부터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양적인 우세에 기초한 군사교리의 전통을 깨뜨리고 전쟁예방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 충분성 방어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기본개념을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적용하면서, 국가차원에서의 안보를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총체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군사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을 주장했다.

러시아연방은 군사교리(1993.11.), 국방법(1996.5.), 국가안보개념(1997.12.)을 국가의 법적인 문서로 발표하고, 국가안보위협요인, 기본적인 군사전략개념, 국가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어떠한 국가도 적대시하지 않고, 평화공존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옹호하고,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군사전략이 방위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사회·정치·경제적 모순, 영토·종교·민족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모순과 대립이 증폭되어 전쟁의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확대되어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 일부국가에 악용될지도 모를 첨단군사기술의 이전, 국제테러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민족주의적, 분리주의적 경향이 구쏘련 공화국의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어, 러시아는 이를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적인 위협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적인 대외침략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믿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군사적 차원에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1)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써 러연방 국경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재적인 무력갈등과 국지전, 2)러연방의 이웃국가들과 근접지역에서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의 생산기술과 운반수단의 확산, 3)국제테러리즘, 4)러시아 영토와 인접한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 그룹의 형성 또는 유지(예를 들어, NATO), 5)세계적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초월하여 신세대 군사장비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발전, 6)국내적으로 군개혁의 미완성, 7)국가방위를 위해 부족한 재정, 8)군대내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9)대량의 군사장비와 무기들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

이러한 위협평가는 과거에 비해 직접적 위협보다 간접적 위협, 군사적 위협보다 경제적·사회적 위협, 대규모 전쟁보다 소규모의 지역적 분쟁을 당면한 위협으로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으로 “전방위 기동방위”를 채택하고 이 개념에 맞게 군구조·군사력을 개편하고 있다. 핵무기의 사용여부에 대해 93년 11월에 발표한 「군사교리」에서는 핵무기 선제사용 불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9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개념」에서는 유사시 적의 공격 억제와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시사하고 있다. 쏘연방시절에는 장비와 병력을 전국경지역에 따라 전진배치 시켰고, 막강한 재래식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과거만큼 군대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군사력이 자연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방어를 위해 핵무기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소수정예 기동부대를 선호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군이 탄생할 때 러시아는 군구조와 지휘체계를 쏘연방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했다. 5개 군종과 통합군체제를 유지하고, 쏘연방구성공화국들이 독립함에 따라 군구를 14개에서 8개로 축소 조정하고, 병력과 장비의 재배치, 이에 따른 모든 시설과 구조를 건설 및 조정 중이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계획만 있었지 거의 실천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군개혁은 1992년 5월부터 거론되었으나 매년 계획만 수립하다가 97년 7월부터 개혁안이 일부 실현되고 있으며, 98년 8월에 다시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군개혁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군병력을 98년말까지 120만 명으로 감축,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100만 명선을 유지
- 97년말까지 새로운 전략로켓군 창설
 - 국방부 직할부대인 우주군전략미사일부대와 방공군소속 우주미사일방어군을 기존의 전략로켓군과 통합
- 98년도에 방공군과 공군을 통합, 2001년에 전략로켓군을 공군에 통합하여,

현재 5군→4군→3군으로 변화

- 해군 4개 함대 유지, 그러나 각 함대의 함정과 병력 감축
- `98-2001년 신속대응군 편성 지역위협 대처
- 지상군을 10개의 완편사단으로 축소 재편
- 현재 8개 군구를 6개 군구로 재편하고 각 군구에 작전전략지휘 기능을 부여하고, 전략사령부를 설치
- 군교육기관 2001년까지 50% 축소
- 국방부 본부 인원은 전병력의 1%수준으로 유지(현재 3만 명)
- 군수산업체를 현 1,600개에서 300개로 축소하고 인력 27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감축
-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공장, 군사시설을 통합정리하면서 5만 개 직위 축소
- 장군수 단계별 감축(`97: 1,925, `98: 1,630, `05: 1,200)
- 2005년까지 군사력 건설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
 - 1단계(1998-2001): 조직기구개편을 통한 국방조직의 효율성 증대 여건 마련
 - 2단계(2002-2005): 무기, 장비의 질적 수준 제고
- 신군사독트린 작성 중

러시아 정부는 국방부산하의 군사력이외에 기타 정부부서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들도 통합·축소하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중장비를 국방부로 이관하고, 연방보안부로 통합될 예정이며, 내무부산하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력이 약 30%축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러시아는 군개혁이란 이름아래 러시아의 경제적 능력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군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전략문제연구소가 92년과 9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그동안 러시아연방군이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7> 병력

단위: 만 명

구 분	총병력	지상군	해 군	공 군	방공군	전략로켓군
'92년	272	140	32	30	35.6	14.4
'98년	115.9	42	18	21		10

※ 98년도에 공군과 방공군이 통합하면서 방공군소속이던 우주미사일방어부대가 전략로켓군으로 이전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1998-1999*.

<표 8> 중요 전략 무기

구 분	탱 크	APC	화 포	다련장로켓포	SSM	헬 기
'92년	29,000대	23,000대	22,000문	4,500문	900기	3,200대
'98년	15,500대	3245대*	15,700문	869문	200기	2,300대

출처 : *Ibid.*

<표 9> 지상군의 중요 장비

구 분	핵잠수함	ICBM발사기	ABM	전략폭격기
'92년	55척	1,400기	100기	170대
'98년	26척	756기	100기	66대

* BTR-50P는 제외되었음. 50년대에 생산된 구형장비이므로 러시아가 정책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판단

출처 : *Ibid.*

<표 10> 해군의 중요 장비

구 분	잠수함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프리깃함	전투기
	전 략	전 술					
'92년	55척	183척	4척	33척	26척	129척	620기
'98년	26척	72척	1척	17척	13척	13척	146기

출처 : *ibid.*

<표 11> 공군의 중요 장비

구 분	전투기	수송기	훈련기
'92년	3,300기	620기	1,500기
'98년	2,065기*	340기	1,225기*

* 방공군의 전투기 포함

출처 : *ibid.*

위 표들은 지난 6년간(1992. 9.-1998. 9.) 러시아연방군의 군사력변화(양적인 측면에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연방이 92년도에 소련에서 물려받은 군사력의 5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양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러시아는 적어도 아직은 세계 제2위의 군사적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핵무기를 고려하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군은 내적으로 붕괴되어가고 있다.

러시아연방이 탄생되면서 군에 입대하는 장,사병들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특히 사병들의 경우는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격자들이 매년 입대자들 중 50% 정도가 되고 있다. 장교들의 경우 과거보다 사관학교 경쟁율이 낮아져, 질이 낮은 지원자들이 입교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군사교육과 훈련을 규정대로 받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대지휘 능력도 저하되었고 전투장비 운영을 못하고 있다. 주요 이유는 연료의 부족으로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을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대와 장병들이 일정수준의 전투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부대훈련이 있어야 하는

데 계획대로 훈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상군의 경우 지난 수년간 사단급 기동훈련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군구사령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는 식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병들의 식사가 커다란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부대 자체의 식품생산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 이러한 첫째 원인은 국방부가 하급부대에 책정된 예산을 적시에 하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병들의 병영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구타, 탈영, 총기 사고, 자살 등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군인들에 대한 봉급 체불이 보통 3-4개월이며, 그나마 수령액이 기본생계비에 모자란다. 대도시나 근처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비공식적으로 다른 직업을 하나 더 갖고 있다.⁶⁾

오늘날 러시아 연방군은 최신장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제2위의 군사장비와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군기와 사기의 저하, 훈련 부족, 심각한 의식주 문제, 장비의 정비부족, 나아가 군지도자들의 지휘능력 부족, 국가적으로 군개혁의 지연 등으로 러시아 연방군은 질적으로 매우 저하되었고, 전투준비 태세가 거의 안되어 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적 추세가 계속 악화된다면 러시아군은 점점 더 붕괴되어 갈 것이다.

IV.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왜 오늘날 러시아연방군은 붕괴 직전 상태에 놓여 있나? 왜 러시아정부는 체첸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체첸반군을 제압하지 못했나? 쏘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막강한 군사력을 왜 유지못하는가? 양적으로 축소되었어도 왜 질적인 수준을 유지시키지 못하는가? 군기·사기·군사훈련수준 등이 왜 저하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전투능력이 상실되고 전투준비태세를 유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무엇이라는 대답을 제시하고, 동시에 깊이있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쏘련붕괴시 물려받은 유산적 측면, 지정학적, 정

6) NATO사령부의 비공식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였음. 1997년 3월에 작성완료, 회원국가들에게만 배포된 연구보고서로써, 최초로 NATO가 러시아연방군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The Prospects for Reform in Russian Military*

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오늘날 러시아연방군이 왜 붕괴직전에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유산

앞에서 본 것처럼 러시아연방군은 쏘연방이 해체될 때 쏘연방군이 보유하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약 75%이상 물려받았고, 다른 공화국에 비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장 강력하였다. 그러나 15개 구성공화국이 하나의 단일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모든 공화국이 각각 독립하게됨에 따라 러시아연방군에 속해 있던 타공화국의 장사병들도 거의가 자신의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군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연방군은 타공화국의 군대와 비교시 하나의 군사조직으로써 가장 완벽하고, 즉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군도 군대를 재조직, 재편성해야만 했었다.

우선 계급구조별로 인력을 볼 때, 상부구조의 장군들보다 하부구조의 사병들이 대거 러시아군대를 이탈하였다. 또한 직책별로 인력을 볼 때 부대 지휘관, 참모들보다 장비조작과 정비를 수행하는 기술적, 특히 하급부대 기술직의 장사병들이 많이 러시아군대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쏘연방군의 인력을 구성공화국별로 볼 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러시아인을 위시한, 소위 슬라브족이 더 많이 차지하였고, 손발이 움직이는 기술직을 러시아공화국 이외의 공화국 출신들, 슬라브족 이외의 민족출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대지휘통솔과 장비정비, 나아가 교육훈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개선이 되지 못함에 따라 점점 더 그 영향은 악화되었다. 즉 군전체를 축소 조정도 못하고, 반대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러시아연방 영토밖에 있었던 병력들이 철수하여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문제였다. 바르샤바조약의 해체, 쏘연방의 붕괴로 타구성공화국에 있었던 부대들, 냉전시대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주둔했던 병력들의 철수로 이들을 위한 부대주둔지가 필요했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고, 또는 기존부대시설에 통합되기도 했으나 철수된 장비들은 거의 야지에 방치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장사병들이 의식주문제로 부대를 이탈했고, 궁극적으로 많은 부대가 해체되었다. 즉, 러시아정부는 재정적으로 새로운 주거시설, 부대시설을 건설할 수도 없었고, 장비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주지도 못했던 것

이다.

셋째로, 러시아연방이 쏘련의 방산시설과 능력을 80%이상 물려받았어도 장비부품공급이 문제였다. 군사장비와 무기를 설계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품, 중요한 부품은 거의 모두가 러시아연방내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단순 노동만 필요하거나 사소한 부품은 거의 타공화국에서 생산되었었다. 쏘연방해체후 이러한 부품들이 납품이 되지 않아 장비를 생산할 수가 없었고, 부대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연방정부가 이러한 부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장에 재료공급도 못하고 재정지원도 못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군이 갖고 있는 장비들은 가동을 중지하고, 궁극적으로 폐기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는 모든 장비에 해당되며, 현재 핵무기관련 장비와 시설도 안전상태 유지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쏘연방이 해체될 때 군사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중에 상기와 같은 요인들은 처음에는 매우 사소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비를 폐기하거나 부대를 해체하고, 장비들이 군을 이탈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2. 지정학적

러시아연방군이 쏘연방의 계승자라고 하지만 러시아연방은 쏘연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냉전시대에 쏘련은 미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이었으나, 오늘날 러시아는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을 견제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쏘련의 붕괴는 단순히 구성공화국들의 분리독립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연방의 안보와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과거에 쏘련에 의해 통제되거나, 쏘련에 속했던 영토들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의해 보호받거나 통제되는 영토들과 인접해 있었다. 그리고 거의 예외없이 국경선 주변에는 막강한 군사력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서쪽, 남쪽의 국경들은 과거 쏘연방구성공화국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미-일-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도 양측의 군사력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리고 쏘련에게 중요했던 발틱해, 카스피해, 흑해의 항구들이 이제는 타국가의 소유로 되어버렸다.

바르샤바조약의 해체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유럽중심에서 1,500km 러시아쪽으로 물러났다. 즉 러시아를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없어져, 지난 40년간 서구유

럽국가들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지리적 이점이 사라졌다. 지난 300년 동안 처음으로 모스크바군구가 후방지역에서 전방지역으로 변화된 것이다. 과거의 동유럽국가들과 쏘연방구성국들이 유럽안보문제와 관련 러시아연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자신이 아시아국가라고 한다. 그러한 이유는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러시아의 우랄산맥으로부터 극동지역까지의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영토의 3/4이 아시아지역에 있고, 아시아지역의 1/3이 러시아 영토이다. 쏘련이 해체됨에 따라 러시아의 중심이 동쪽으로, 즉 아시아쪽으로 더 이동하였다. 쏘련이 붕괴된 이후 아시아가 러시아에게 지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면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발틱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와 외부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항구시설은 극동지역에만 위치하고 있다(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프츠니).

이처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 변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새로운 국경, 새로운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새로운 외교와 안보정책을 맞이하게 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외부위협보다 국내적 위협, 군사적 위협보다 비군사적 위협을 더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안보와 외교관련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CIS국가들에게 두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들이다. 그리고 국제적 갈등의 해결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갈등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전략을 방어적이고, 핵무기의 선제사용보다 억제효과를 최대한 기대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영토가 감소하고, 국경선이 노출되고, 국제적으로 보다 고립화된 것이 러시아로 하여금 보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안보관과 군사적 준비를 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연방과 또는 국경근처에서 대규모의 재래식 전면전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민족, 종교, 자원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나 국경근처의 인접국가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이에 대비하는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란 점을 애써서 부인도 하고, 동시에 인정하면서, NATO가 러시아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면서도 군사적으로 준비

를 한다거나, 미국과 NATO에 대해 외교적으로 공식적 항의를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정치적

러시아연방 정부가 출범한 이후(1991.12.) 러시아의 정치정세는 점점 불안해졌다. 엘친정권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정치적 안정을 찾고, 경제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엘친의 정치권력은 흔들리고, 이와 함께 정국도 점점 더 불안해 갔다. 이러한 배경으로 엘친의 정치·경제 개혁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개혁세력이 의회에서 열세이므로 보수·민족주의적 세력(공산당과 자민당)이 항상 엘친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끊임없는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신진 개혁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해졌다. 엘친의 경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국민들의 생활고와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현 경제개혁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엘친은 반대세력에 조금씩 밀리다가 1998년 9월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는 내각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통령과 의회,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권력투쟁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군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하원에서 안보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렉세이 아르바토프(Alexei Arbatov)는 러시아군대가 1941년 이후 오늘날처럼 붕괴직전에 있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고 있다(Arbatov 1998, 83-134). 그는 러시아연방 탄생이후 새로 등장한 정치인들의 무지와 태만,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 정치인들의 사분오열과 무제한적인 권력투쟁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엘친정부는 군 개혁에 관해 92년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행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위한 예산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군관련 확고한 정치적 제도도 확립하지 못했다. 그는 민간우월주의라는 원칙으로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군 고위직책에 있는 장군들의 충성심,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군사력이 붕괴되어 가고, 군대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군대가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쏘연방이 붕괴

되기전까지는 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군대의 기본 가치관을 제공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였다. 이제 이러한 역할을 제공할 기관이 없으므로 군 스스로 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제도와 법이 서구적 민주주의를 모방하여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는 어떻게 군대내의 규율을 바꾸어야 할 지를 모르고 있다. 70여 년 동안 미국을 위시한 나토국가들을 오늘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군대는 아직도 논쟁중이다. 새로운 정치제도와 법, 새로운 정치권력이 들어서면서 군대의 최고지도자급에서도 세대교체가 있었고, 잇달아서 새로운 인물들이 진급하여 군을 지휘하게 되어 군대내 갈등이 벌어지고, 지휘에 혼란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대내외 환경에 군지도자들이 신속히 적응하여 군대를 정신적으로, 규범적으로 개혁을 못하여 군대는 아직까지도 혼돈된 상태이다.

4. 경제적

오늘날 러시아연방군이 쓰연방에 비교하여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붕괴직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다. 이러한 배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체적으로 러시아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이며 나아가 정부가 국방예산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2년 초부터 시작한 러시아경제개혁은 실패했다.

가격자유화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외국상품과의 경쟁력을 증가시키지 못했고,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사유화정책은 정경유착으로 연결되어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고, 정부가 바라는 서구적인 기업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1991년과 비교시 제자리 걸음이고,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호 「Foreign Affairs」지에 실린 하나의 글은 러시아의 경제를 이렇게 평하고 있다. “그 누구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약속한 기간에 채무를 지키지도 않고, 약속한 기간에 갚을 수 없는 빚만 만들어내고, 임금은 말로만 지불되는, 이러한 경제체제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Graddy 외 1998, 56)

즉, 한마디로 실질경제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허수경제라는 것이다.

러시아군이 계속 붕괴되어 가는 근본이유는 국방예산 부족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GDP의 약 3.5%, 연방 전체예산의 16-21%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비

율이 아니다. 러시아국방부는 해마다 GDP의 약 7%정도를 요구하고 의회는 그 절반으로 삭감하고, 더욱이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액수를 모두 지불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12> 1992-1998 러시아의 국방예산

단위: 10억 루블

년도	국방예산	집행액	연방예산대비%
1992	0.901	0.855	16.0
1993 (재조정)	3.116 (8.327)	7.210	16.6
1994	40.627	28.028	20.9
1995 (재조정)	48.577 (59.379)	47.800	21.3
1996	80.185	63.900	18.4
1997 (재조정)	104.300 (83.200)	79.700	19.7
1998	81.765	—	16.4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8/99*, p.104.

국방예산의 수준을 현재보다 더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이므로 러시아국방부는 예산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계속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까지 100만 명 수준으로 감축시킨다고 하지만 경제부서에서는 60-70만 명 수준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8년도 국방예산 현황을 보면 817 억 루블이 승인되었으나, 지난 8월에 약 658억 루블로 축소 조정되었고 그나마 10월말까지 50% 정도만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97년도부터 별도로 할당되어온 98년 군개혁예산도 40억 루블에서 20억 루블만 집행되었다고 한다.

군인들에 대한 급여수준이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나마 3-4개월씩 지불하지 못하고, 식품을 공급하는 군납업체들에 대한 부채가 누증되어 납품업체들이 빵공급을 중지했고, 야전빵제조기를 설치하는 부대들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신형 군사장비 구입과 연구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13> 1992-1997년 중요장비 생산 현황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탱크	500	200	40	30	5	5
보병전투차량	700	300	380	400	250	350
자주포	200	100	85	15	20	10
포격기	20	10	2	2	1	0
전투기	150	100	50	20	25	35
수송기	5	5	5	4	3	0
헬 기*	175	150	100	95	75	70
잠수함	6	4	4	3	2	2
수상함	1	1	0	1	1	0
ICBM/SLBM	55	35	25	10	10	2
SRBM	80	105	55	45	35	30

* 민간생산 포함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8/99*, p.106

V. 결론

냉전시대에 미국과 NATO가 쏘연방의 병력을 400만 명, 군사비는 GDP의 18-20%라고 평가하면 쏘연방은 자신의 병력을 300만 명, 군사비는 GDP의 5%라고 발표하였다. 이제는 러시아국방부가 병력은 170만 명, 군사비는 GDP의 5%라고 발표하면 미국과 NATO는 병력 130만 명, 군사비는 GDP의 4%라고 평가한다. 러시아 군지도자들은 군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외국의 무력공격에 대비해 전투준비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발표한다. 반면에 미국과 나토는 아예 러시아 군사력에 관해 공식적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나 연구소들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연방군은 정상적인 전투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가 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여, 지방에 있는 군대가 무력적 반항세력으로 변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연방군을 평가하는 시각이 상호 바뀌어졌다.

지난 98년 8월에 또 한번 수정하여 확정된 군개혁이 계획대로 수행되어야 러시아군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군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그 필수 조건은 적합한 수준의 예산지원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은 군개혁의 전망을 매우 흐리게 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이 단결하여, 군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도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999년과 2000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기해 정치권력의 획득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의 경제도 회복될 전망이 없다. 러시아연방군이 어디까지 붕괴되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긍정적으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